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적 문화 현상

송미숙 (성신여대 교수)

1. 머리말

문제의 진술 -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징후 혹은 패러다임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은 다수의 개설서, 편역서, 논문들의 표제들, 혹은 방송이나 지면을 통한 소개와 논평에서 뿐 아니라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듯한 '신비성' 때문이지 카페, 레스토랑, 의상실의 이름에까지 편재, 남용되고 있어 이제 우리에게 식상하리만치 회자되어진 용어의 하나다. 이 말의 일반적인, 다시 말해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고 인용하는 의미는 한때 '모던'이란 말이 지녔던 매력과 유사한 뜻으로 그러나 세기말의 '데카당'적 특징을 포괄하는 정도로 사용된다.

아울러 작금의 한국의 문예 비평가들, 특히 문학 비평가들 사이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에 관한 연구의 수량이나 빈도에 비해 핵심이나 쟁점도 제대로 파악, 혹은 해결하지 못한채 그것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더니즘의 지속 혹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것인가 하는 찬반론의 시위적인 이론 분쟁, 아니면 한국에서의 수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로 일관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해 몇 년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발표도 했으나 항상 주어진 범위, 즉 미술에만 한정시켜 관심과 정의를 제시해왔으나 내용을 깊이 들어갈수록 개념의 시각적 양상에만 논의의 초점 -미술 비평계에서의 주제를 의식하고 있는 문제다- 을 들 수 없으며 찬반론, 수용의 문제는 먼저 개념의 정확한 파악의 전제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세미나에서도 한국에서의 수용이라는 이름하에 찬반론의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이제까지의 비평계의 관행과 전략을 표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필자는 이 자리를 활용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잇슈를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징후 혹은 패러다임으로 설정, 개념의 핵심을 집근해보고 나아가 최근의 한국의 문화 현상에 그 개념(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의 여부를 진단해볼까 한다. 문화적 징후로 간주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근간 개념이 예술을 대중과 삶, 나아가 대중 문화와 동일한 차원으로 보고 있으며 더불어 실제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일종의 '사회 비평'(Social Critique)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맥락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필두로 많은 지식인들이 서구 사회가 2차대전 이래 그 성격이 급진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자각했고, 이러한 변화들을 사회학자들은 미디어 사회, 스펙터클의 사회, 소비사회, 후기산업사회 등 다양한 용어들로 묘사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회들을 총칭하는 보다 멋있는 수식어로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 '포스트모던'이었다. '포스트모던'이라는 수식어, 이 수식어는 이념이라기보다는 감각적, 감성적 차원의 현상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이며,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과 구분되어야 한다.

여하간 포스트모더니즘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 즉 후기소비산업사회의 표제이며 일부분은 제반 예술에서 기용되기 시작한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새로운 용어이기도 했다.[1] 이러한 언어학의 차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실제는 로잘린 크라우스의 말대로 '준 문학적'(para literary)성격을 지닌다. 이 발표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복잡하고 혼미한 구도 - 흔히 보수주의적 '신우파'(New Right)로 지칭되는 보수적 자유주의 그룹과 '신좌파'(New Left)로 불리우는 급진적 신마르크시즘 진영의 양대 산맥으로 대별되나 - 를 해제하기 보다는 그 이념의 정체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잇슈와 개념들을 설파하고자 해보았다.[2]

출발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료타르의 이론을 정리해보고 이어서 신좌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세미슨의 접근, 페미니즘 이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푸코의 사상,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비평으로 시작한 데리다의 해체주의 방법론과 현대 소비 사회를 대상의 관점에서 기호학적으로 접근, 새로운 '시뮬레이션'론을 제시한 보드리야르의 논지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 그런 다음 이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이 과연 작금의 한국의 문화 현상과 연관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론의 소개에서부터 현재의 동향까지를 문제제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제이론과 문화적 징후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료타르(Lyotard)는 그의 「The Postmodern Condition」에서 지난 40년 동안 주요 과학과 기술 공학은 점증적으로 언어—언어학 이론들, 통신과 두뇌 공학, 컴퓨터와 컴퓨터 언어, 번역의 문제, 정보 저장과 데이타 뱅크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기술 공학의 변화는 우리의 지식에 관한 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기계들의 소형화, 상업화는 이미 지식의 전달이 습득되고, 분류되며 유용화되며 계발되는 방법을 변화시켰고 따라서 지식의 성질과 위상은 사회가 포스트모던 시대로 접어들며 변해야만 했다고 한다. 지식의 습득이 마음의 훈련 혹은 개개인의 훈련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과거의 원칙들은 이제 사라졌으며 지식은 그것 자체가 목표이기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지식은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팔리기 위해 생산된다. 료타르를 빌리지 않고라도 이제 우리는 컴퓨터화된 지식이 지난 몇 세대 동안 생산력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과 또 그것이 가장 진보한 선진국들의 노동력의 구성에 이미 현저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식은 패권을 위한 경쟁에서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과거에 영토 지배권을 위해 싸웠듯이 언젠가는 정보의 지배를 위해 국가간의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 사실상 자본의 원활한 유통의 새로운 형태라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서 투자 결정은 하나의 국가나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신의 변증법, 노동자의 해방, 부의 축적, 계급 없는(계층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와 같은 모더니티의 장대한 신화가 모두 신념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합법성도 잃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별화되고 단편화된 사회는 존속되며 그 안에서 예술, 도덕성과 과학(즉 미, 선, 진)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며 자율적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언어 게임의 단편화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에는 어느 단일한 지배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성과 국부성이 편재할 뿐이다. 료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우는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징후 혹은 패러다임은 비관적이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는 신화, 마술, 민속적 지혜나 다른 설명적 시도들을 강조하는 모던 이전, 즉 전통적인 사회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보이고 있다. 과학 지식이 아니라 미학적, 인식론적, 도덕적인 것, 이른바 진, 선, 미가 결합된 '네러티브' 지식의 신축성과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한 개인주의를 동시에 료타르는 갈구하고 있다.[3]

제미슨의 '파스티쉐'와 '자아분열증'으로서의 진단 · 신좌파 마르크시즘적 관점과 대안

미국의 문학 비평가 프레데릭 제미슨은 마르크시즘, 경제 사회학, 구조주의와 정신 분석학을 종합한 절충주의 이상론을 문학 비평에 적용, 문학의 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는 '신비평'(New Criticism)에 대한 대안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파스티쉐'(Pastiche, 혼성 모방)와 자아분열증(Schizophrenia)으로 분석하고 있다.[4] 그는 모더니즘들(복수형)은 개인적인 양식의 발명에 근간하고 있으며 모더니스트 미학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하며 동시에 자신의 분명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고한 자아와 개인적 정체성의 개념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개인의 유일성의 개념과 개인주의의 이론적 기초는 관념론적이며 부르조아 개인은 과거의 것이며 신화일 뿐이라고, 즉 애초부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단지 신화화된 것이다라고 규정한다.

양식의 발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세상에서 남은 유일한 것은 '파스티쉐'이며 파스티쉐, 즉 이미 죽은 양식들의 모방의 기용이다. 부연해 모더니즘시대에서 포스트모던 세계로의 전환은 주체의 해방(소외)이 주체의 단편화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개별적 주체의 소멸과 고요하고 개인적인 양식의 부재는 위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실제 수단, 즉 '파스티쉐'를 초래했고 '파스티쉐'는 우리 자신의 것보다 문제가 덜한 시기를 환기시키려고 하기 때문인지 편재하는 방식—특히 영화예술에서—이 되었다. '파스티쉐'의 편재는 현재에 개입되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며 이러한 거부 의식을 제미슨은 소비 사회의 '자아분열증'의 특징이라고 간주한다.

제미슨은 포스트모더니즘 소비 사회에서 특이한 시간의 개념이 창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가 의미하는 바를 라캉(Lacan)의 자아분열증(Schizophrenia)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캉의 독창성은 자아분열증을 언어의 무질서(혼돈)로 간주한 데 있다. 자아분열증세는 유아가 완전히 언어와 말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데서 파생된다. 라캉에게 시간성—즉, 인간의 시간 개념, 과거, 현재, 기억, 그 속에서 지속되는 개인의 정체성—의 개념은 언어의 결과다. 뒤집어 말해 언어란 문장이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가지며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경험을 언어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열증은 그러한 언어의 분절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성에 대한 경험도 갖지못하며 과거의 다양한 순간들은 아무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미래의 지평도 없는 '영구한 현재' 속에 살도록 조건지워진다. 바꾸어 말해 자아분열증의 경험은 조리있는 인과적 연쇄로 연결되지 않는 분리적이고 끊어진 물리적 '기표'(signifier)들의 경험이다.[5] 한편으로 자아분열증은 우리보다 어떤 주어진 현재에 대해 더 강력한 경험을 갖는다. 반면, 자아분열증은 아무도 아니며 개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는 시간의 연속성에 자신을 연루시킬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약해 자아분열증은 분절되고 단편화한 시간, 즉 영구한 현재의 연속만을 경험한다.

제미슨은 이렇듯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역사에 대한 감각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대사회의 전체 조직은 그 자신의 과거를 견지할 능력을 점점 상실, 영구한 현재 속에 살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과거의 모든 양식들을 무작위적으로 폭식하는가 하면 우리의 현재의 경험들에 대한 표현들을 형성하는 능력도 점차 상실하고 있다. 제미슨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소비자본주의의 논리를 반복하며 동시에 강화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은 작금의 다국가적 자본주의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제미슨의 이러한 단편성의 개념은 료타르가 사회적 경험의 유기적인 통일성과 그로 향한 장대한 '네러티브'를 지향하고 있는 헤겔과 마르크스를 반박하고 언어 세임, 시간, 인간과 사회의 단편성을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8] 그러나 니체의 조직에 대한 비판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이론적인 개념화--역사가 그 중의 하나이며 합리주의를 이성의 재국주의라 간주한다--와 도그마도 부정하고 있는 료타르와는 대조적으로 제미슨은 현실은 우리에게 '이야기' 즉 '네러티브'의 형태로 파악된다고 규정한다.

역사의 개념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는 제미슨은 그의 역사관을 '생산 방식'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한 관심은 연속적인 경제 발전 단계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주어진 역사적 구조의 틀 안의 모든 사회현상들을 상호 혹은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가능성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제미슨의 주장은 생산 방식의 역사는 사회에 대한 분석의 도구로 가용할 수 있다는 데 그 개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제미슨은 사회적 전체성을 지배 계급과 노동 계급간의 계급 투쟁에 의해 항상 형성되는것으로 규정하며 적대적인 계급들의 주장들 사이의 대화의 형태가 있는 문화의 수준에서 사회적 질서가 존립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화는, 제미슨의 주장에 의하면, 공유하고 있는 규약의 단일성에 의해 항상 가능하다.[7]

제미슨에 따르면 작금의 자본주의는 이제까지 비소모품화되었던 영역, 가령 자연과 무의식의 개척에까지 확산, 침투해 자본주의 이전의 농경 문화의 파괴와 미디어와 광고 산업의 부상을 가져왔다.[8] 루카치와 프랑크푸르트학파로부터 계승한 제미슨의 기본 정치적 개념들은 유물론과 소모성론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이 전체 지구촌, 아니 미국의 포스트모던 문화는 세계 곳곳에 뻗쳐 있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의 새로운 여파의 내부와 상부의 구조적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급의 역사를 통틀어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밑바탕은 피, 죽음과 공포다."[9] 제미슨은 우리가 개별화된 불자체로서 포착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 거대한 지구촌의 다국가적이고 탈구심화된 정보 통신망의 윤곽을 그릴 수 없는 우리 마음들의 무능력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 저항의 국부적인 형태들뿐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까지도 하나의 체계에 의해 비밀리에 해제되고 재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미슨은 언급하고 있다.

제미슨은 이러한 포스모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우리는 지방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계급 현실들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윤곽지워야 하며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물자체의 실존적 자료들과 경험론적 위상을 전체성의 이론적 개념들과 대등하게 할 필요를 갖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개별적 주체에게 지구촌의 체제 속에 그의 위상에 관한 어떤 새롭고도 고양된 감각을 부여할 수 있는 인식론적 틀의 미학과 교육학적인 정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푸코의 역사철학과 페미니즘 이론

'차별성'(Difference), 타(Other), 자아(Self)

프랑스의 철학자며 사학자인 미셸 푸코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특히 포스트모던페미니즘 이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가 사학자로서 특별히 관심을 보인 시대는 18세기이나 사회과학과 정신분석학, 문학을 원용한 그의 포스트구조주의적 역사 방법은 역사 기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의 핵심을 갈파해내고 있다. 그의 역사관의 신선함은 무엇보다 인간을 지식의 주체와 객체로서 동시에 간주한 새로운 인간의 개념에 있다. 신좌파, 즉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체제론과 분석의 전체론적 시각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며 장대한 이론화는 어떤 형태로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푸코는 그의 우상이었던 니체에게서 차용한 역사관에 근간하고 있다.

그의 역사 개념은 니체의 「도덕성의 계보학에 관해」라는 책의 표제를 따라 '계보학'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푸코는 니체가 그의 저서에서 현재를 과거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재의 개념을 한정하려 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필연성의 연결선을 추적하려는 역사가들과는 달리 그리고 하나의 생산의 방식이 다른 또 하나의 방식으로부터 변증법적으로 유출되어 파생된다는 해결의 목적론적인 모형을 동시에 부정하면서 푸코는 '차별성'의 제시를 통한 니체 식의 비평 전략을 기용, 현재의 적법성을 상대화하며 과거의 뿌리를 도려낸다. 부연해 푸코는 현재로 시작해 하나의 '차별성'이 발견될 때까지 시간 속으로 후진한다. 그런 다음 다시 전진, 변형을 추적하면서 불연속성과 연결점을 동시에 보존한다. 과거와 현재 사이이 갭은 푸코의 역사 기술의 핵심인 '차별성'의 원리를 정의하며 그는 불연속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남겨둔다.

계보학적인 분석은 여러 면에서 전통적인 역사적 분석과 다르다. 전통적인 총체의 역사는 사건들을 장대한 설명적 체계와 직선적인 과정들 안에 삽입하고 위대한 '모먼트'와 인물들을 기념하며 시원을 증명하려 하지만 계보학적인 분석은 사건들의 유일성을 구축, 보존하며 역사를 거부당한 모든 현상들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푸코에 의하면 이른바 과학성 혹은 이성이 필요 조건에 수준 미달이거나 혹은 위계적 서열에서 하부에 놓인 나이브한 지식들이 불충분하다 하여 폄하되어 종속되어졌다고 주장한다. 계보학은 바로 이러한 국부적, 불연속적, 평가 절하된 비적법적인 지식들에 초점을 둔다. 요약해 계보학이란 하나의 비평 형식이며 그것은 하나의 사건 뒤에 있는 요소들의 다

원성과 역사적 형태들의 유약성을 폭로하고자 한다. 푸코의 저술들은 과거를 구성하는 데 어떤 상수도 본질도 부동적인 형태도 없다는 것을 예시한다.

푸코는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의 주제, 즉 이성이 제외시킨 광기, 우연과 불연속성의 개념들에 관심을 가졌다. 철학이나 법에서는 이러한 '타성' (Otherness)에 관해 묵과해왔으나 문학은 말할 수 있게 한다고 믿었다. 그는 유사한 이유로 위범의 문학과 그 예술적 표현에 가치를 두었는데 왜냐 하면 위범은 그의 이질성에 의해 모든 다른 형태의 담화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잇슈로 등장한 페미니즘의 이론에 미친 푸코의 영향을 간주할 때 그의 가장 기본적인 저서는 「훈련과 처벌」, 「성의 역사」다. 지식과 권력간의 관계와 상대성, 다시 말해 지식과 권력간의 상호 의존성이 푸코의 저서의 전략적인 지점이다. 여기서도 그는 니체를 원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그것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푸코에게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힘이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정의하는 힘이다. 그의 관점에서 지식은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감독, 통제와 훈련의 방식이다. 「성의 역사」의 1권인 입문서에서 푸코는 그의 힘(권력)의 이론을 신체에 대한 관계로 전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논리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억압의 요소들을 해제하기 위해 기용되었다.[10]

성은 신체의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성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힘(권력)과의 관계들의 결과라는 푸코의 개념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여성의 성에 대한 어떤 문화적으로 결정된 이미지 속에서 통제되고[11] 피폐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했다. 더욱이 성, 곧 신체가 힘(권력)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따라서 자연적 산물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푸코의 개념은 본질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푸코는 후기에 그의 성에 관한 주제를 '자아'의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이 전환은 이전의 지배의 기술학의 분석을 주체성의 기술학의 분석으로 보완하는 신체들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지배 구조들을 도전하며 저항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행동자라는 것으로 간주된다. 푸코의 자아론의 모형은 고대 고전 연구에 비롯하고 있으나 자아의 실행론의 핵심인 능동적 자아 형성 과정의 개념은 여성의 주관성을 부계 사회의 수동적인 희생자들이 아닌 것으로 보고자 하는 일련의 페미니스트들의 최근의 시도들과 병행하고 있다. 부연해 자아의 윤리학에 관한 푸코의 작업은 '여성적' (feminine) 또는 '모성적' (mothering) 윤리에 관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작업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주의' 론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들과 일치한다.[12] 푸코의 '차별성' 론, 성과 자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은 포스트모더니스트 페미니즘--본질주의 페미니즘의 비판에 역점을 둔--의 전략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그의 한계는 다른 여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상대론에 그치고 있어 실행을 위한 지침, 모형이나 집합적인 목표 설정--물론 이것이 바로 푸코가 하지 않으려는 것이나--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 'sous rature' 와 'differance'

원래 문학 비평에 적용되는 해체주의는 언어의 체계가 하나의 텍스트에서 경계점들과 통일성과 결정적인 의미들을 구축하는 데 적절한 기초들을 제공한다는 가정을 와해시키며 그 기초를 파헤치고자 하는 독서의 이론과 실제를 지칭한다. 해체주의의 전형적인 독서 방법은 교재 자체 내의 갈등적인 힘들이 표면상으로는 분명한 구조와 의미들을 다원적이고 모순되며 비결정적인 가능성들로 필연적으로 분산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체주의(Deconstruction)이론과 그 명칭의 창시자이기도 한 프랑스의 언어학자며 사상가인 쟈크 데리다의 사상적 근간은 지식, 진리, 또는 정체성과 같은 기본적인 철학 개념들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상징하고 있는 급진주의 철학자들, 니체와 하이데거, 그리고 그의 정신 분석학으로 논리적인 인간의 의식과 일원적 자아의 전통적인 개념들을 위반했던 프로이트다. 데리다의 문장들은 (니체의 그것과 같이) 복합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우나 그가 표현하고 있는 주요 개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

가장 중요한 개념이 'sous rature' (직역해 지워진 밑에)인데 그 과정은 먼저 하나의 단어를 쓰고, 다음 그 말에 X표를 해 지운다. 그런 다음 말과 지운 것을 같이 인쇄한다. 다시 말해 말이란 부정확하다 아니 불충분하다. 그래서 지운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함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남긴다는 것이다.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안은 데리다가 자주 Dasein(Being) 이란 말을 X로 지우고, 그리고 나선 그 말이 부적절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운 것과 말을 듣다 나타나게 했던 하이데거에게서 차용한 것이다. 기표, 즉 언어의 구체적인 요소와 기의, 즉 그것이 개념적인 의미의 피상적인 동일성은 그들 자체의 긍정적, 본질적인 특징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수사음, 쓰여진 기호 혹은 개념적 어의들과 다른 차이점들에서 기인한다는 소쉬르의 언어학적 기호 체계의 관점에서 출발했으나 데리다는 한층 더 급진적인 주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데리다는 어떤 특별한 언설에서 하나의 단어가 표기하는 의미를 구축할 수 있는 특징들은 그 어의가 다른 어의들과의 차이점들을 가르키는 조직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정체로 우리에게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들 특징들이 엄격하게 '없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대신 어떤 구어체 또는 문어체의 언설에서 표면적인 의미는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흔적(trace)의 결과일 뿐이다. 이 흔적은 현재의 예증과의 차이점들이 언설을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효과를 부여하는 유일한 요소인 모든 현존하지 않는 의미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데리다에 의하면 어떤 말이나 글에서 우리는 하나의 고정되고 결정적으로 현존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의 차별성적인 유희는 하나의 언설이나 교재에서 결정적인 의미들의 '효력들'을 산출하나 이러한 효력들은 환영일 뿐이다라고 데리다는 역설한다.[14]

데리다가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의 투사된 목적이 그 수단과 일치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환상일 뿐이다 라는것이다. 다시 말해 데리다에게 기호는 기호학에서처럼 원천(지시하는 대상)과 목적(의미)을 연결하는 하나의 동질적인 단위로 파악될 수 없고 대신 기호는 '지워진 밑에서' 즉 항상 나타나지 않는 또 하나의 기호의 흔적이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관찰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은 언어는 시간적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가령 우리가 한 문장을 읽을 때 그 의미는 항상 미정이고 유보돼 있다. 하나의 기표가 또 하나의 기표로 이어지며 이전의 의미들은 이후의 것들에 이해 수정된다. 각 기호에서 그 기호가 자신이 되기 위해 제외시킨 다른 말들의 흔적들이 있다. 바꾸어 말해 의미는 결코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 왜냐 하면 다른 문맥에서 나타난 기호는 결코 절대적으로 꼭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Différence' (불어의 differer 동사에서 파생된)로 이 불어 단어는 영어의 'Difference' 와는 달리 '다르다' 라는 의미와 '연기 또는 유보한다' 는 의미를 융합한 것이다. 이 이중적 의미는 한편으로 하나의 교재는 차별성의 산물인 하나의 의미성을 가지는 효력을 재공하며, 반면에 이 제공된 의미성은 하나의 실제적인 현존성 -범언어학적 신험적 기의 -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결정적인 설명은 하나의 언어학적 해석에서 또 다른 해석으로 끊이지 않는 역행의 운동(혹은 놀이)으로 유보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Différence'의 끊임없는 유희에서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언술에 어떠한 결정적인 의미도 혹은 한정된 부리의 다위적인 의미들도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없다.

데리다는 해체주의를 하나의 문학 비평 방식으로서보다는 서구사상의 묵계로서 관념화된 형이상학적인 전제들을 폭로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모든 유형의 교재들을 읽는 방법으로 세안했다. 그에 의하면 서구 철학은 글보다는 말, 즉 '소리'에 중심을 둔 '음성중심주의' (phonocentric)였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 언어와 경험의 초석으로 작용할 몇몇의 결정적인 '단어' 가령, 현존성, 본질, 진리 혹은 현실과 같은 말에 대한 신념에 위탁한 로고스 중심의 경향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Logocentric). 서구 철학은 다른 모든 것들에 의미를 주게 될 기호 '선험적 기표' (transcendental signifier) 와 우리의 모든 기호들이 지시할 의심할 바 없는 의미 즉 '선험적 기의'를 갈망해왔다. 그러한 기호들의 예증들은 신, 이데아, 정신, 자아, 물질 등이다. 이들 개념들의 각각은 우리의 사고와 언어 체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체계 너머에 있어야만 한다. 데리다는 그러나 그러한 신험적인 의미는 허구라고 주장한다. 모든 위계적 의미들이 구성될 난공불락의 근원 데리다는 이것을 최초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에 의존하는 사고 체계를 데리다는 '형이상학적' 이라고 칭하며 그러한 최초의 원칙들을 가까이 숙독하면 그들은 언제나 해체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최초의 원칙들은 그들이 제의하는 것들, 즉 일종의 '이원적 대립' (binary opposition)에 의해 통상적으로 정의된다.

해체주의는 비평 작업에 주어진 이름으로 그 작업에 의해 그러한 대립 명제들은 부분적 해체될 수 있다. 그에게 형이상학의 이원적 대립 명제들은 기표/기의, 감각적/이지적, 수사학/저술(혹은 말/언어), 공간/시간. 수동/능동 들이다. 구조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비평들 중의 하나가 이러한 이원적 대립 명제들을 'sous rature' 상태로, 즉 문제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이원적 대립 명제들은 이념들의 전형인 하나의 보는 방법을 대표한다. 이념들, 즉 이데올로기는 무엇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 자아와 비자아, 진과위, 감각과 비감각, 이성과 광기, 중심과 가장자리, 표면과 깊이 사이에 임격한 경계선들을 자주 긋는다. 데리다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습관화되어진 그리고 우리의 사고 속에 형이상학의 존속을 보장하는 그러한 대립 명제들--물질/정신, 주체/객체, 베일/진실, 신체/영혼, 교재/의미, 내부/외부, 재현/현존, 외양/본질 등--을 해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해체주의적 방법들을 기용하면서 우리는 이들 대립 명제들을 풀기 시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반명제의 한 용어가 다른 용어 속에 내재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바로 사회적 철학적 고정 관념과 위계적 틀에 대한 전격적인 도전이며 해체로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이념 전략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1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리다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그의 선임자들은 니체, 프로이트와 하이데거다. 그들은 전부가 'sous rature'의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 하이데거는 '존재'를, 프로이트는 '정신' 그리고 니체는 '앎' 곧 지식을 주제로 삼았다.[16] 니체의 중요성은 형이상학에 대한 체계적인 불신과 진리와 의미의 가치들에 대한 회의에 있다. 데리다를 예시하면서 니체는 플라톤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언어가 급진적으로 은유적 성격을 지니다 라는 사실을 억압해왔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데리다는 모든 언어가 은유적이라고 간주하며 어떤 언어도 문자 그대로 즉자적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이 시사하는 것은 문학이 철학과 더 이상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철학과 문학, 비평과 창조간의 명백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철학, 법과 정치 이론들은 시들이 그러하듯이 은유에 의해 작용하며 따라서 시와 마찬가지로 허구적이다.

결론적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기표와 기의의 자기 정체성과 말하는 주체와 음성적 기호의 자기 현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심, 고정된 주제, 선취적인 참조 사항, 원천, 최초의 원칙의 절대적인 설정과 지배와 관련된 모든 것의 포기를 주장하는 해체주의는 직가와 작품의 전통적인 개념들을 분해하며 독서와 역사의 관례적인 개념들의 뿌리까지 파헤친다. 모방적이고 표현적이며 교도적인 문학의 이론들대신 원문(텍스트)만을 세공한다. 저자를 없애고 역사와 전통을 원문 속으로 끌어들이며 독자를 우상시한다. 포스트구조주의적 이

론의 주요 특징들의 하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제와 직결되고 있는 개념이 자아의 해체다. 존재와 의식의 통일되고 안정된 존재와 의식 대신에 우리는 여러 조각으로 단편화되고 해체된 자아들의 놀이를 갖게 된다.

원문과 함께 독자도 불안정하다. 해체주의와 함께 비평, 철학과 문학의 카테고리는 허물어지고 그 경계들 또한 모호해진다. 이제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작품은 급진적이고 끊임없는 무한한 의미들의 유희를 향해 안정된 의미와 진실 밖으로 폭발하며, 이전의 분석적이고 조리 있는 비평 저술은 단편화된다. 해체주의자들의 방법은 전통적인 대립 명제들을 고의적으로 전복시키며 반대 용어들간의 갭에서 명명되지 않은 이전까지 비가시화된 개념들을 윤곽지운다. 따라서 해석론과 기호학에서 해체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에서 차별성으로, 통일성에서 단편화로, 존재론에서 언어철학으로, 지식론에서 수사학으로, 현존성에서 부재로의 초점의 전환이 있게 된다.[17]

보드리야르와 '시뮬라시옹' 혹은 '하이퍼리얼'론

보드리야르는 데리다, 푸코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회언어학자다. 그의 연구의 테마는 현대 소비 사회나 1968년부터 1980년대까지의 그의 저서를 훑어보면 논리의 관점이나 방법에 변화가 발견된다. 초기에는 네오마르크시즘적 관점에서 소비 사회 구조의 포괄적인 재고찰을 시도하나 그의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생산의 거울」(1973)에서는 그가 한 해 전에 발표한 기호의 정치 경제학적 비평을 비평 사회 이론을 위한 새로운 기초로 삼아 마르크시즘에서 이탈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주요 이론들, 가령 노동의 개념, 변증법, 생산 방식론, 자본 비평은 그의 비평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반사(거울) 이미지로 노출된다.

보드리야르는 계속해서 그의 초기 저서들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호구조론--산업사회 이전에는 상징적 구조, 르네상스에는 언어가 그의 상호성을 잃게 되면서 추상적인 코드, 즉 기호구조로 변형되는--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20세기 후반기에서는 기호들은 그들이 지시하는 대상(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호등을 방불케 하는 구조로 결과된다. 기표들은 아무런 언어학적 반응이 없는것에 의미를 분사하는 교통 신호등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기표들의 복합 조직을 보드리야르는 '코드'라고 부른다.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기의(의미)들을 추출해 그들을 미디어를 통해 마치 '떠다니는 기표들'(Floating signifier)로서 재전개하는 식으로 코드는 작동한다. T.V. 광고들은 특히 그 코드가 의미의 이러한 '테러리즘적' 방식에 조건지워진 대중에게 기표들을 전사하는 새로운 언어 형태를 구성한다.[18]

1981년에 출판된 「시뮬라크라와 시뮬레이션」에서 보드리야르는 그의 소모성 문화론을 펼치고 있는데 소모 문화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코드는 소비 대상에 선취권을 가질 수도 혹은 선행하지도 않는다. 대상과 재현, 사물과 개념간의 구분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대신 보드리야르는 아무런 지시 대상도 또는 그들 자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갖고 있지 않은 '시뮬라크라' 혹은 모형들로 구성된 기이한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 '시뮬레이션'은 허구나 허위와는 다른데 그것은 현존성으로서 부재를, 사실적인 것으로 상상적인 것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자신 속에 사실적인 것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적인 것에 대한 대비도 와해시키고 있다. 광고 이미지들의 '비사실적인' 무수한 광고 이미지들에 의해 무시당한 '사실적인' 소모 경제학 대신에 보드리야르는 이제 극사실(하이퍼리얼리티), 즉 자기 참조적 기호(self-referential sign)들의 세계만을 식별할 뿐이다. 그는 T.V. 광고--그것이 권유하는 소모품을 전적으로 지울 수는 없는--로부터 이야기 형태로만 뉴스를 창조하는 T.V. 뉴스캐스트나 극중의 매일의 사건들이 많은 관객들에게 지시 대상이며 동시에 실제인 '소프오페라' -- T.V. 멜로드라마 연속극--로 관점을 돌리고 있다.

보드리야르의 하이퍼리얼리티 이론이 가치가 미미하다 해도 그의 해체주의적 접근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생각케 한다. 해체주의자들은 유물론자, 현상학자, 리얼리스트들에 대항, 언어의 자기 참조성을 교재의 분석의 열쇠로 삼았고 그것은 이제 보드리야르에서 하이테크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적 실존의 최초의 원칙으로 기용되고 있다. 비평 이론은 이제 아무도 지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배당하지 않으며 지배로부터의 해방 원리를 위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지배 구조 자체의 베일을 벗겨야 하는 엄청난 임무를 직면하게 된다. 아우슈비츠가 죽음의 생산으로서 전체주의적 특정의 기호라고 한다면 '하이퍼리얼리티'의 세계는 생과 사간의 구분을 뛰어넘고 있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레이션'론의 비관주의적 시사는 「숙명론적 전략」에서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현대 사회를 대상(물), 즉 피상적인 모순 어법--말하자면 '현명한 바보'와 같은--의 관점에서 간주하려 하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보드리야르는 재현적인 주체는 이제 과거지사라고 가정하고 위상을 대상(물), 구체적으로 극사실적인 대상, 다시 말해 시뮬레이트된 대상에게로 옮겨 '숙명론적 전략'이라 지칭한 대상의 논리를 제안하고 있다. 보드리야르의 대상의 관점에서 본 세계는 다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위치에서 본 세계와 거의 동일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미디어를 통한 하이퍼리얼의 작금의 확산은 마르크시즘, 또는 해방의 정치학의 붕괴, 바꾸어 말해 합리주의적 주체로부터 진실로의 접근이라는 특권을 앗아갔다는 것이다. 개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시민권을 최대화하려는 시민도,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단지 코드에 의해 정의된 대상들의 미끼인 소비자들이다. 미디어는 합리주의적 비평에 면역이 된 '시뮬레이션'의 세계를 산출할 뿐이며 아울러 정보의 과용을 재시, 수용자의 반응을 무시한다.

이러한 시뮬레이트된 사실은 아무 지시 대상도, 근거도, 원천도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재현의 논리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시뮬레이션들을 흡수하나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대중들에게 미디어의 소외나 코드의 테러리즘에 대한 탈출로서 보드리야르는 침묵

의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18] 그러나 여기서 보드리야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의 긍정적인 면이다. 가령 예를 들면, 대중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문화들의 인간화된 이미지들로서 편협한 국수주의, 지방주의를 와해케 하며 아울러 즉각적이고 세계적인 정보 통신망은 인간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미디어의 잠재력에 대해 보드리야르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성과와 문화적 징후

신화파(신마르크시즘)에 속하는 제비슨에서 보드리야르에 이르기까지의 이론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징후는 현 다국적체제의 후기소비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과학 시식과 그의 최초의 원칙인 합리주의에 입각한 개체의 고유성과 자아 정체성(Self Identuty)에 대한 신념은 직법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척도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말세는 니체, 프로이트, 가깝게는 하이데서, 라캉을 원용하고 있는 포스트구조주의자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들 특유의 '준문학적' 혹은 언어학적 방법을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존의 철학적, 정신 심리학적, 사회적 개념들에 심현, 관습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왔던 고정 관념들과 그 선험적 틀을 와해 혹은 해체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는 성, 신체, 타, 차별성, 시간보다는 공간적, 지역적 가변성(다양성)과 현재성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며 이 관심은 그러나 다분히 비관론적 세계관, 즉 현대소비사회에서는 객체(대상)가 주체를 대체하는 (즉 진과 위기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물질 중심의 다국적 구조에 대한 자아 분열증적 문화 징후에서 배태된 것이다. 즉 김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설파하고자 한 이제까지의 서구의 역사, 철학의 해체주의적 재해석은 이전까지 신과, 소외된 타와 차별성, 국부성과 주변성, '현실'에 대한 관심을 대두, 진식사켰으나 그의 표현은 탈구심화, 불확정성, 단편화, 복제의 편재 등의 세기말적 문화적 징후를 양산해냈다.[19]

3.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의 문화 현상

한국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대두는 문학 비평에서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영문학 전공의 젊은 학자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즉 미국에서 수입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술 비평에서는 80년대 중반경 젊은 비평가들 이 세미나에 발표자의 한 사람인 서성록 교수의 위시한 에 의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 미국내에서는 70년대에 사회학자인 다니엘 벨에 의해 활자화되어 곧 이어 문학 비평계와 무용계에 확산, 미술에서는 건축가인 찰스 젠크스에 의해 용어가 거용되었고 미술 비평계에서는 70년대말에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70년대를 끝맺으며 80년대로 넘어오는 거울호에서 마국의 유수 미술 잡지인 「아트저널」지는 편집장이었던 어빙 샌들러의 주재하에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미술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도되었다. 그 후 미국 미술사 학자들이 가장 큰 연례 학술 행사인 CAA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잇슈들인 '성' (gender), '응시' (gaze) 페미니즘이 독립된 패널의 표제로 기획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Session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해체주의의 창시자인 데리다의 이론은 미국 문학 비평에 일찍이 소개 1966년 존스홉킨스대학 초청 강연으로 시작된 되어, 처음에는 '신비평' (문학에서의 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는) 작업에 적용되었으나 후에는 보다 급진적인 해체주의로 그 적용이 변질되나 제반 문에 비평가들과 작가들에 그의 영향은 확산되어, 그들의 주요 비평 이론 및 실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60년대말 본격적인 이론 작업에 들어간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시즘과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신개념과 방법들을 닥치는 대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미국의 식자층이 60년대 이래 점증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한 사회 변화의 문화적 징후를 적절히 대변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물론 포스트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등식은 문화적 징후의 공통적인 관점에 근간한 단순 논리에 불과한 것으서 앞서 거론한 사상가들의 입장 료타르를 제외하고는 과는 때로는 무관하다. 이제부터는 해방 이후 미국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 한국의 문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미국 문화, 특히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을 다루어보았으나 이 시점에서는 피상적인 심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미국 문화와 예술

미국 문화의 성격을 사회적, 인종적, 지형적 관점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혼성 문화(hybrid culture)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동안 테크놀로지와 과학에 대한 신념과 순수성, 완벽성, 합리주의 사고에 입각한 무한한 진보와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신화를 창조했고 미술에서도 아방가르드 순수 형식 미학을 전략으로 국제 미술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모더니즘 체제에 안주해왔다. 그러나 60년대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평가 절하와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결점은 가시화되었고 워터게이트 사건, 월남전과 인도차이나 개입등 국내외의 불안하고 심각한 징세들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유토피아적인 미래로 이어지는 발전의 기대보다는 중심이 없이 방향을 잃고 과거 속으로 퇴행케 하는가 하면 아니면 현실 도피적 혹은 비판적 허무주의에 심취케 해 약물 중독과 자살 충동에 빠지게 하거나 캔트대학 사건과 같은 과격한 집단 학생 운동, 여성들은 남성과의 동등권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과 일부 주장부들의 교육상의 분리를 기회를 집화되기 시작한 시민권 운동에 가담케 해 미국 사회는 이른바 혼란과 불안, 불확실성으로 집절된 병리 현상을 초래했다. 미술에서는 모더니즘의 마지막 보루였던 미니멀리즘도 개념과 제작 과정을 분리시켜 예술의 상품화를 막으려고 했으나 그 또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아울러 미니멀리즘의 극도의 환원주의는 형식이 개념으로 대체되는 아이러니를 산출, 모더니즘 형식주의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것을 예시했다.

70년대의 미국 문화와 예술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합리주의에 대한 불신, 혼란과 불안으로 점철, 구심점과 가치관을 상실한 현실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각된 것이 지각과 인식 체제의 재편성이었다. 예술은 이제까지 '순수성' '독창성'이란 미명하에 도외시돼왔던 환경, 사회, 삶과 직결된 내용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전까지 주류(mainstream)에 밀려 표면화되지 않았던 미국 특유의 혼성 문화적 성질과 유관한 사회 비평적 현안 잇슈들--소수 유색 인종 차별, 성차별 등과, 미술에서는 순수 형식주의 모더니즘 추상 양식의 주류에 밀려 폄하, 차별시당했던 요소와 개념들, 즉 이들은 대체로 차별화를 골자로 한 내용들이다--을 상정시켰고 이러한 차별화의 논리를 위해 그 동안 서구 사상과 인식론을 지배해왔던 데카르트-칸트-헤겔-후설로 이어지는 합리주의 이성론의 재구성과 재인식을 요구하는 사회 과학,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의 간학문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을 예술가들은 섭렵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론들은 그들의 사회 비평적인 작업에 인용되거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소개한 료타르, 데리다, 푸코, 브드리야르 등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 경향의 사회학자, 언어 철학자들의 이론들은 70년대 부각한--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미국의 다원주의 혼성 문화와 예술의 해체에 적절한 것으로 보였을 뿐 아니라 바로 미국의 혼성 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으로 보였다.[20] 반면 아이러니는 제미슨이 예견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 전략은 후기산업사회의 정보통신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다국적 기업 체제의 지구촌 문화의 설정을, 소비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주체와 객체, 진과 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지식과 정보, 예술 등 모든 것을 소모품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헤게모니의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속의 미국 문화의 정체 : 쟁점

1945년 미소의 잠정적인 신탁 통치를 조건으로 한 일본의 식민지화에서의 해방은 한국, 즉 남한을 또 하나의 종속 국가로, 이번에는 미국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종속 국가로 만들게 했는데 이에 일익을 했던 사건은 6·25였다. 일본의 시각과 의식--유럽 문화와 예술에 근거하고 있었다--을 통해 진작된 20세기초의 소위 '근대화'의 과정은 50년대 후반부터 미국적 요소에 의해 수정되거나 대체되어갔다. 이제 미국 문화는 우리 생활과 사고를 지배하는 요체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없다. 작금의 현상만을 가지고 볼 때 한국 문화는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좀 더 거리를 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지구촌 곳곳에 편재되어 있는 보다 다국적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 문화의 유입이 단순히 타성처럼 몸에 배어버린 우리의 식민지적 유물사관의 재인식의 차원에서의 표피적 모방인가 아니면 지구촌 속의 한국이라는 표방하에 총체적 문화 현상인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다.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남발하고 있는 소위 '미국 문화'의 영향이 점철되기 시작한 것을 길게 잡아야 30년 안팎이며 그것도 초반에는 일본이라는 중간 다리를 이용해 유입되었고 직접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며 가장 확실하게 미국적 요소로 체감되고 있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현상과 잇슈다. 그러나 그것도 혹여 헐리우드 영화나 과대 포장된 헤게모니 전략과 현대미술의 '네러티브'를 액면 그대로 미국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고려돼야 할 것은 이른바 주체 의식론자들이 성토하고 있는 한국 문화 속의 외래 문화의 모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가려 우리가 그 동안 간직해온 한국적 정서와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규명되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논제에 앞서 탐구돼야 하며 앞으로의 문화 예술 비평가들이 집중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진다.

4. 맺는말

현시점에서 본 한국 문화의 진단의 문맥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합리주의 사상의 '로고스' 중심의 인식과 사고 체제에 대한 전격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학문적 이론적 성과이기도 하다. 작금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찬반론이나 어의의 논쟁, 혹은 현상의 해제 라는 관점을 넘어 주요 이론들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유교주의적 도덕 관념에 입각한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 사고, 인과론과 체제 순응론(conformist theory)의 수정과 변화를 진작케 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며 실제로 적용--특히 여성학 분야와 그와 관련된 제반 페미니즘 활동들에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현상과 실제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포스트'란 접두어는 여기서 후기, 즉 late 이라는 의미와 '脫', 즉 beyond란 의미를 결합한 말로 필자는 이말을 원어 그대로 기용하고자 한다.

2.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쟁은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계급(혹은 헤게모니) 투쟁의 예증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공격이며 문화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모더니즘 운동--미술에서는 추상표현주의와 그의 후속 양식 사조들, 건축에서는 국제 양식, 철학에서는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부정이다.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정통성과 비정통성의 실존주의적 모형, '記表'와 '記意'간의 기호학적 대치, 잠재와 현현의 프로이드적 모형, 외양과 본질간의 마르크시즘적 모형 같은, 이른바 '깊이'를 가늠하는 모형들을 부정, 대신 실제, 담화와 말 그대로의 유희의 개념으로 대체하려 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더

불어 새로운 유형의 '표면성'과 피상성이 출현했다고 제미슨은 보고 있다. 신좌파는 기존의 마르크시즘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새로이 수정된 논리와 관점으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는 반면 따라서 마르크시즘의 장대한 '네러티브'(신화, 민속, 즉 서술적 전통)와 전체주의(totalitarian) 이상을 새롭게 상정하려 한다 . 포스트모더니스트(대부분이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며 사회학적으로는 마르크시즘, 언어학적으로는 구조주의에서 출발했던 이들이다)들의 이론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비평'에 머물고 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Donald Kusplt, "The Contradictory Character of Postmodernism," Postmodernism Philosophy and the Arts(ed. Hugh J. Sivarman), 1990. 53 68

3. Jean 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1984. 6 8, et passim.

4. Frederic Jamese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Capital," New Left Review. No. 146, July/August 1984.

5. 제미슨의 라캉의 이해와 인용은 대부분 후자의 영향력있는 주요 저서 Jacgues Lacan, :The Language of Self. The Function of Language in Psycho Analysis, translated into English by Alan Sheridan, 1977에서 빌어온 것이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며 교육자였던 라캉의 세미나와 저술은 1953년에서 1966년 사이로 그의 강의와 저서들은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영어로 번역되어 영미에 소개되었다. 그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이론에 기초했으나 그의 주요 개념들은 프로이트 이론의 재고찰과 수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 대단한 논란과 반향을 야기시켰고, 그의 정신분석학은 제미슨을 위시한 마르크시즘에서 출발한 일련의 포스트구조주의자들, 사회학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6. 이 단편성의 이론은 발터벤야민의 아방가르드 예술품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알레고리' 그의 알레고리는 유기적 '상징'의 반의로 기용되고 있다 의 원리와 유사하며 그의 영화에서의 몽타지 기법으로 축약할 수 있는 알레고리의 원리는 브레히트의 희곡이 아마도 가장 적절한 예증일 것이다. Nadan Sarup,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 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New York/London, 1988, 135 137을 참조 아울러 전체성과 단편성의 논란은 루카치와 아도르노의 아방가르디즘에 대한 유명한 논쟁의 주제였다.

7. Jameson, New Left Review, 58.

8. 제미슨의 시대 분류 리얼리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는 경제학자 만델(Mandel)의 저서 「후기자본주의」(Late Capitalism)의 표제의 구분, 시장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혹은 제국주의), 다국적자본주의를 원용한 것이다. 신우파로 불리우는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주장, 곧 우리는 더 이상 고전자본주의의 법칙 소위 산업생산의 우위성과 계급투쟁의 편재 에 종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마르크시즘은 시대 퇴행적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만델은 현대의 자본주의 형태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의 출현을 대표한다고 본다.

9. Jameson, New Left Review, 57.

10. Lois McNay, Foucault and Feminism: Power, Gender and Self, Boston, 1992를 참조: 푸코의 주요 개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유용하다' Paul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1984. Jonathan Arac, ed. After Foucault, Humanistic Knowledge, Postmodern Challenges, New Brunswick/London, 1988.

11. 푸코의 성의 개념은 성에 대한 과학의 지배를 말한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에 대한 반박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의 성의 역사를 간추리면 중세에서의 성의 개념은 육체만을, 17,8세기부터는 신체와 마음(즉 의도)을, 20세기부터 프로이트와 함께 성은 과학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저서의 기본명제는 성은 자연적인 현실이 아니라 개인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담화'들과 실제들, 즉 사회적 문화적 조직 체계의 산물이다. 푸코의 주요 목표는 현대사회들의 과학지식과 기술적인 이성론에 입각한 사회적 통제에 대한 비평이다. Sarup, Post Structuralism, 76 80.

12. McNay, Foucault and Feminism, 4 5, 93 115: '본질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본성 가령 번식 가능, 출산과 모성 에 가치를 둔 페미니스트이론의 한 유형이다. 페미니즘의 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12월 중순경 개최될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주최의 페미니즘 심포지움에서 다룰 것이다.

13. 그의 기본 입장은 1967년에 출판된 세 개의 저서들, of Grammatology, Writing and Difference, Speech and Phenomena에서 발견된다.

14. M.H. Abrams, "Deconstruction,"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6th Ed., Fort Worth, 1993, 225 230.

15. 같은 방법으로 데리다는 자연과 문화를 대립관계로 이해하고 문명을 인간의 '자연의 순진성의 상실'로 보고 자연=정신의 풍요의 신화를 창조한 루소, 비슷한 이유로 원시부족사회의 순수성에 대한 노스탈자를 묵무했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를 보는 사회적 실존의 자기소외적인 성격을 무시한 '현존성'의 환영적인 형이상학이라고 데리다는 비판한다. Sarup, Post Structuralism, 41 45.

16. 데리다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교재들을 풀이하는 방법의 교육시침과 기용에 있다. 프로이트는 '금지된' 꿈 사고들을 왜곡하거나 굴절시키며 꿈의 상형문자적 표현을 산출하는 심리학적 장치의 '꿈의 해석 작업'에서 기용하고 있는 네 가지 기법들을 축약, 대체, 의미성의 고려들과 이차적 수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축약과 대체는 수사학적으로 은유와 轉喩로 번역되며 세번째 항목은 개념을 왜곡시켜 하나의 형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법을 말하며 이차적 수정이란 모순성을 덮어주며 분명한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힘이다. 프로이트는 구어체의 교재는 표출만큼 은닉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아울러 주체가 교재를 지배하지 않는 곳, 즉 교재가 매우 스무스하다거나 혹은 아주 졸렬한 곳에

독자들은 그들의 응시를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가장 위대한 해석자는 쟈크 라캉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더우기 그는 에고가 정신의 기본 결정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논리를 거부한다. 그에게 주체는 결코 총체적인 개성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원히 그의 욕망의 대상과 분리된다. 라캉은 아울러 무의식을 언어의 구조적 관점에서 정의한다. 라캉과 데리다는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그들은 둘 다 언어의 反실증주의적 이론들과 언어의 은유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교재로서의 무의식과 꿈의 프로이트의 이론들에, 다시 말해 독서의 방법과 저술의 양식들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문화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반면, 데리다는 라캉의 분석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입각, 진리와 정통성에 관한 개념들을 밝히는 데 있다고 간주, 그러한 개념들은 전후 실존주의적 윤리학의 잔재며 헤겔적인 현상학의 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7. 어느 한 해체주의 논평가는 "해체주의는 진리에 대해 분산을, 통일성과 조리성 위에 파열과 분해를, 중립적인 폐쇄성 위에 비결정적인 공간들, 주의와 이성 위에 유희와 히스테리아를 경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V. Leitch, Deconstructive Criticism, An Advanced introduction, London, 1983, 246.

18. Mark Poster, ed. with Introduction, Jean Baudrillard, Selected Writings, Stanford, 1988를 참조.

19. 포스터는 보드리야르의 역설적인 혁명적 전략에 대한 대체 전략으로서 부르디유나 드세르토의 저항 전략이 보다 발전적이고 지각있는 해결로 간주하고 있다. Poster, Baudrillard, 7.

20. 미국의 미술비평가인 도널드 커스핏은 이러한 세기말적 병폐와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적 카타르시스에 의한 '치유'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의 '치유'론은 사실 요셉 보이스의 예술가=샤만의 영매작용에 의해 정신적으로 병든 삶과 세계를 가장 순수한 정신활동인 예술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인도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계를 고통과 죄악에서 구원한다는 일종의 구세주예술론에서 차용한 듯하다.

21. 올해 과천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한 휘트니비엔날레의 출품작들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이슈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예증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적 문화 현상」에 대한 질의

김홍남(이화여대 교수)

모더니즘의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는 적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현실화되었으며, 한국의 예술, 특히 문학과 미술에 필연적으로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일종의 "문화 혁명"이 이 시대의 소명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의 파급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즉, 이는 성숙한 이해와 주체적 수용의 문제로서, 이 과정에서 역사적, 이론적, 비판적 길잡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미술사가, 비평가들이다. 미술관, 조형연구소,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임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그것은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징후 혹은 패러다임이지, (모더니즘 사고를 근간으로 한) 또 하나의 새로운 양식 혹은 life style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둘째, 그것은 미국 문화의 산물이며, 한국 문화는 미국 문화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셋째, 소위 "모더니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문화는 대체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띤 자연 발생적인 것이기보다는 미국 문화의 모방적 수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인 면은 형식주의적 편향성을 띄어왔던 미술사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점이다.

이 진지한 발표는 한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가 성숙하는 데에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점에 있어 부정적인 면이 지나치게 강하게 보인다. 이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도 발표자는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 적이 있다. 그가 지적한 제일 큰 문제점은, 80년대 이후 한국미술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상블라쥬,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에 나타나는 형상성, 내용 또는 표현으로의 복귀, 리얼리즘의 재동향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용의 결과이나, 이들 제경향은 근본적으로 피상적이며 자생성(lived experience)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은 또한 모더니즘 세대의 한국미술이 지녔던 문제를 계승하고 있지 않나, 즉 포스트모더니즘을 또 하나의 새로운 양식 혹은 life style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를 우려하고 있다.

예술에서 "자생성"이란 정말로 중요한 요건이다. 자아와 산 경험에 바탕한 창조가 아닌 예술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사람과 같이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고 측은하고 자신감 없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십상이다. 한국에서는 "척"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국 밖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며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 수준의 눈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속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예술에 성큼 들어선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모더니즘을 역사적, 비평적으로 평가, 정리를 하고, 8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적인 제동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성격 규명 작업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생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인가?

사실상 이 논문에서는 아니지만 발표자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주장하는 "전통으로의 복귀, 정신 또는 도덕성의 회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근대산업문명, 기술화, 현대화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정신 또는 도덕성의 퇴폐, 고갈 현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말에서 긍정적인 수용가능성의 일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이론적, 미학적, 조형적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다. 현대 한국 문화의 불안한 징후들은 너무나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치인, power elite, powerless elite, 공중 간의 거리가 멀다. 정책과 진정한 지성과의 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또한 "타", "제3세계" 문화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가치관 변화, 즉 다원주의적 문화 개념 또한 제3세계에 속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본인이 받아들이는 요소이다. 제3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전의 피상적 호기심의 대상이나 개념적, 조형적 도용 가치의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적 주체로서 진지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자세는 우리의 자주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정체성 발견에 창조적이기를 요구한다. 모더니즘 시대의 굴레를 벗는 계기, 자유, 자립적 문화의 조건,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 의식, 고유 인식 체계를 계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던,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새 문화 운동을 우리 문화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